

국립극단 해외공연 물꼬 텃다

프랑스판 양반전 '귀족놀이' 10월에 프랑스 공연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니에 연출 눈길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윤택)은 프랑스 풍자희곡의 대가인 몰리에르(1622~73) 원작의 '귀족놀이'를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니에(Eric Vigner:44)의 연출로 다음달 11~24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올린다.

국립극단 기획공연 시리즈 '세계명작무대'의 하나로 공연되는 '귀족놀이'는 우리에게 '귀족수업'이란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작품. 몰리에르의 희곡 'Le Bourgeois Gentilhomme'(평민 귀족)를 '놀이'로서의 유희성에 중점을 두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프랑스판 '양반전' 격인 '귀족놀이'는 기존 작품해석이 돈 많은 평민 '주르맹'이 귀족계급에 끼어 들려고 벌이는 소동을 단순한 풍자극으로 접근했다면 이번 무대는 주르맹이 후작부인을 만나 문화와 예술에 눈뜨고 이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한 남자의 꿈과 환상이란 측면에서 풀었다.

이번 작품은 국립극단 최초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작이라는 의미도 있다. '귀족놀이'는 한국공

연이 끝난 뒤 오는 10월 11~16일 프랑스 브르타뉴의 '로리앙(Lorient)극장(1100석)의 가을시즌 공식 레퍼토리로 프랑스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국립극단의 과거 작품 '피고지고 피고지고', '맹진사댁 경사', '무의도 기행' 등이 해외에서 공연된 적은 있지만 모두 행사 위주의 단발성 초청공연이었던 반면, 이번 '귀족놀이'의 프랑스 나들이는 출연료를 받고 정식으로 상품으로 팔리는 국립극단의 첫번째 해외 진출작이라고 극단측은 설명했다.

이번 작품은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니에가 연출을 맡아 원작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 소장 겸 로리앙극장 예술감독인 비니에는 최연소(35세)로 프랑스의 국립연극센터 소장에 임명될 만큼 실험성과 연극성을 고루 갖춘 연출가로 평가받는 인물.

국립극단은 '세계명작무대'를 준비하면서 프랑스 외무부 예술진흥협회(AFPA)의 추천으로 그

를 초빙했으며 2년에 걸쳐 작품을 준비한 끝에 이번에 '귀족놀이'를 올리게 됐다.

국립극단의 '세계명작무대'는 지난 1986년 시작, 올해 제18회를 맞는 국립극단의 대표적인 기획공연. 민간극단이 쉽게 올릴 수 없는 대작 위주의 세계 명작을 꾸준히 소개, 공연 애호가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특히 현지 연출가를 통해 본고장 연출의 맛을 살린 '파우스트'(괴테 작/기징 연출), '간계와 사랑'(슐러 작/아놀드 연출), '노부인의 방문'(뒤렌마트 작/메츠거 연출), '혼수 없는 여자'(오스트로프스키 작/보리스 마조로프 연출) 등이 관심을 모았다.

'귀족놀이'에는 주르맹으로 분하는 국립극단 간판배우 이상직을 비롯해 조은경 이은희, 한윤춘 광명화 등이 출연한다.

공연시간 화~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7시30분, 일요일 오후 4시, 관람료 1만 5000~3만원(사랑티켓 참가자).

☎2280-4115~6. www.ntok.go.kr

연합뉴스 홍성록 기자

내일 8/24